

여성들의 노동과 계급

: 박완서의 『살아있는 날의 시작』과 『서있는 여자』를 중심으로

배상미*

차례

1. 들어가며
2. 젠더 고정관념이 야기하는 젠더 갈등의 양상
3. 젠더 갈등의 해결과 젠더 모순의 노출
4. 박완서 소설이 발견한 '여성 계급'과 '여성 문제' 해결의 전망
5.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박완서 소설 『살아있는 날의 시작』과 『서있는 여자』를 중심으로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중산층 여성들의 노동과 계급의 재현양상을 살폈다. 이 양상은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임노동만이 아니라 부불 재생산 노동도 착취하면서 운영되는 원리를 규명한 이론으로 포착되었다. 두 소설의 여성인물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여성들로 등장하지만, 가정 안에서는 남성에게 노동력을 착취당한다. 이것은 이 여성들이 주변 인물들 및 사회와 갈등하는 원인이 된다. 이 논문은 이것을 박완서 소설이 드러내는 “여성문제”로 인식하고, 이것의 물질적 토대가 소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폈다. 박완서는 두 소설에서 여성들이 스스로가 내면화한 성차별적 고정관념과 어떻게 투쟁하는지 여성들이 수행하는 재생산 노동을 중심으로 그린다. 이 과정에서 박완서 소설은

* 선문대학교 연구원

가정 내 젠더 불평등이나 이혼 여성에 대한 편견에 직접적으로 도전하지 않는다. 또한 경제적 격차에 따른 차별도 비판하지 않는다. 박완서 소설은 한편으로는 보수적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적인 방식으로 재생산 노동자로서 여성의 계급과 재생산 노동의 모순을 가시화했다는 가치를 가진다.

핵심어 : 박완서, 살아있는 날의 시작, 서있는 여자, 여성문제, 재생산 노동, 중산층, 계급, 노동

1. 들어가며

이 글은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창작된 박완서의 장편소설인 『살아있는 날의 시작』(『동아일보』, 1979.10.2~1980.5.30. 연재, 1980년 단행본 간행)과 『서있는 여자』(『주부생활』, 1982.4~1983.11 연재(당시 제목 『떠도는 결혼』), 1985년 단행본 간행)가 중산층 여성들의 가족과 그 주변 관계를 그리면서 여성의 ‘계급’을 재현하는 방식을 연구하고자 한다.

박완서의 이 두 소설은 『그대 아직 꿈꾸고 있는가』와 더불어 일찍이 박완서가 당대의 여성문제를 그린 소설로서 주목을 받아왔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이 소설들이 ‘여성문제’를 그린 방식에 대한 이해와 평가는 상당히 극단적으로 나뉘었다. 한쪽에서는 박완서의 소설들을 사회 구조적인 모순과의 연관성 속에서 그 재현의 우수함을 평가하였고,¹⁾ 다른 한쪽에서는 가부장적 시각으로 박완서 문학을 평가하는 비평들을 비판하는 동시에, ‘여성해방’적 입장에서 박완서를 비평하는 이들 역시 박완서의 작품이 가부장적 시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비판하였다.²⁾ 그 외에도 박완서 소설이 젠더를 그려내는 양상이나,³⁾ 박완서 소설

1) 이명호·김희숙·김양선, 『여성해방문학론에서 본 80년대의 문학』, 『창작과비평』 18(1), 창작과비평사, 1990, 67쪽,

의 여성인물들이 가부장적 사회구조에 저항하려는 시도들의 중요성에 주목⁴⁾하는 연구들도 있었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는 박완서 문학에 대한 연구와 평가가 다각화되고, 박완서 소설을 가부장적 비평의 시각으로부터 구출하여 페미니즘적 비평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려고 노력했던 시점이었다.

세 소설은 문단과 학계에서 박완서에 대한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기에 주목받았지만,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를 지나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최근 이 소설들을 창작 당시의 정치적 흐름 안에서 독해하고,⁵⁾ 이 소설들의 ‘대중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며,⁶⁾ 소설의 서사 전개가 공간의 변동과 연동하여 나타나는 양상과⁷⁾ 소설 안에서 중산층이 구성되는 방식⁸⁾이나 소설 인물들의 실천이 젠더질서를 교란하는 방식⁹⁾을 분석하려는 시도 등이 나타나면서 이전에 박완서 소설에 드러난 여성의 목소리와 젠더갈등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다른 방법론들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후반에 간행되었던 ‘여성문학’ 무크지에 대한 연구들은 이 시기에 박완서 작품들

-
- 2) 조혜정, 『박완서 문학에 있어 비평이란 무엇인가』, 『작가세계』8, 세계사, 1991, 97-144쪽.
 - 3) 김영희, 『여성문학론의 비판적 검토』, 『창작과비평』16(3), 창작과비평사, 1988, 201-205쪽.
 - 4) 박혜란, 『<여자다움>의 꺾질벗기-박완서 작품에 나타난 여성문제인식』, 『작가세계』8, 세계사, 1991, 65-88쪽.
 - 5) 신섫별, 『정치적 텍스트로서의 박완서 소설』, 『동악어문학』72, 동악어문학, 2017, 205-232쪽; 이한나, 『1980년대 가족법 개정 투쟁과 박완서의 소설』, 『인문과학연구논총』38(4),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13-41쪽.
 - 6) 김양선, 『박완서 소설의 대중성 연구-1980년대 여성문제 소설 다시 읽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54,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2, 215-234쪽.
 - 7) 정미숙, 『박완서 소설 『서있는 여자』의 젠더 지리학과 정체성 탐색』, 『인문사회과학연구』17(1),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7, 23-48쪽.
 - 8) 오자은,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중산층의 정체성 형상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9) 김윤정, 『박완서 소설의 젠더 의식 연구-수행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을 비롯하여 다양한 ‘여성문학’ 담론을 분석하여 1980년대의 담론 지형은 물론, 현재 ‘여성문학’ 담론을 평가하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기에 현재 박완서 문학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¹⁰⁾

1980년대 박완서가 창작한 세 ‘여성문제’ 소설에 관한 연구의 경향들을 살펴보면, 2010년대 전까지는 박완서의 작품을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분석하면서, 이 소설에 재현된 젠더 갈등에 주목하였고, 2010년대 이후에는 박완서 소설에 재현된 젠더 갈등보다 다른 측면에 더 주목하여 박완서 소설이 가진 역사적이고 사회적 의미를 밝혀내고자 했다. 후자의 연구들은 박완서 소설을 젠더 갈등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분석하였을 때 간과하기 쉬운 다층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의미화하려는 시도의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박완서 소설을 논의하는 전형적인 방법론을 벗어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박완서의 세 소설에 나타난 젠더 갈등이 연구의 관심사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박완서의 소설의 ‘젠더 갈등’이 충분히 연구되었는지는 물음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박완서 소설의 젠더 갈등은 주로 가부장적 남편에 대한 비판과 폭로의 측면에서 논의되어왔지만, 이 밖에 가부장적 남편이 용인되는 사회 구조를 보여주기도 한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성의 경제력이 아니어도 가부장적 질서가 지속될 수 있는 가족 내 젠더 역할분업이라든가, 가부장적인 이성애중심주의적 제도가 결혼제도 밖을 벗어난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상황 같은 것들이 있겠다.

이 논문은 박완서의 1980년대 ‘여성문제’를 다룬 세 소설 중 기혼 여성들이 가부장적인 제도 안에서 갈등하고 저항하는 『살아있는 날의 시작』과 『서있는 여자』를 중심으로, 젠더갈등의 물질적 토대이기도 한 가정과

10) 이선옥, 『1980년대 여성운동 잡지와 문학논쟁의 의미-『또하나의 문화』,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43,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7-36쪽; 김은하, 『1980년대, 바리케이트 뒤편의 성(性) 전쟁과 여성해방문학 운동』, 『상허학보』51, 상허학회, 2017, 15-49쪽; 이해령, 『빛나는 성좌들: 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상허학보』47, 상허학회, 2016, 409-454쪽.

가족을 꾸러나가기 위한 젠더 차별적 노동 분업 및 이 노동들의 비가시화로 인한 문제, 결혼제도를 벗어난 여성들도 침윤되어 있는 가부장적인 여성 섹슈얼리티의 규제, 나아가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는 궁극적인 원인인 여성을 사적 영역의 존재만으로 규정하는 토대는 무엇인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박완서의 소설이 여성들을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어떤 지점에 놓여있는 ‘계급’으로 그려내는지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의 연구 대상이 되는 두 소설은 가부장적인 가족법과 이혼한 여성의 경제적 생존을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춘 『그대 아직 꿈꾸고 있는가』보다 가족과 결혼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보다 첨예하게 보여줄 수 있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후반 이후 서구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 중 가사노동에 임금을 부여하라는 운동에 참여한 이들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비가시화되는, 주로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가족구성원들의 삶과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노동을 “재생산 노동”이라고 명명하였다.¹¹⁾ 이들은 자본주의적 젠더분업 하에서 재생산 노동이 이성애 부부관계 안에서 여성들에게 강요된 노동이라고 보고, ‘노동자’로서의 여성들의 위상을 가시화하면서 자본의 무급착취를 폭로하고 이러한 상황에 저항하였다. 무급 재생산 노동자로서의 여성의 지위는 가정을 넘어 임노동시장까지 영향을 미쳤다. 재생산 노동이 임금화된 일자리는 주로 여성을 구인하는 한편, 이 일이 여성들이 가정에서 무급으로 수행하였다는 이유에서 이 일자리의 저임금을 합리화하였다. 그리고 무급으로서의 재생산 노동은 자본주의가 가정을 사적인 곳이자 사랑으로 결합된 공간이라는

11) 실비아 페테리치(『혁명의 영점: 가사노동, 재생산, 여성주의 투쟁』, 황성원 역, 갈무리, 2013, 21-26쪽)와 레오랄디나 포르투나띠(『재생산의 비밀』, 윤수중 역, 박종철출판사, 1997, 22-36쪽)에 따르면, 재생산 노동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족구성원들의 생존과 노동력을 다시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동으로 지칭한다. 대표적으로는 가사노동, 돌봄노동, 성노동 등이 있다.

이데올로기를 퍼뜨리면서 정당화되었다.¹²⁾

가족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가족들에게 재생산 노동을 제공하는 여성과, 이러한 여성의 생계를 부양하는 남성으로 구성된다는 이성애 부부관계 내 젠더 분업은 사회적 젠더 분업을 결정했다. 나아가 이것은 불평등한 젠더 권력관계를 존속시키는 기반이 되었다.¹³⁾ 흥미롭게도,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임노동 시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상황을 지적하며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달리 여성들이 임노동 시장에 진출하였다고 해서 가정 안에 존재하는 젠더 권력불평등의 구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부르주아의 가정과 프롤레타리아 가정의 젠더 차별과 억압이 크게 다르리라고 가정하도 않았다. 여성들은 일찍부터 임노동 시장에서 일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들이 재생산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것도 아니었고, 가정 내의 고정적인 젠더구도는 각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존재하기 때문이다.¹⁴⁾ 즉, 이들은 자본에 의해 물질적이고 이데올로기적으로 고착화된 가정 내 젠더 분업 구도가 존재하는 한, 여성의 임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가정에서 시작하여 사회로 확산되는 젠더 권력관계는 불변하리라고 본 것이다.

이와 같은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은 엥겔스나 베티 프리단처럼 가정을 여성들을 억압하는 근본적인 공간으로 설정하고 여성들에게 그 공간을 빠져나오라고 독려하는 대신, 여성들이 가정에서 종사하는 노동을 가시화하고 그것의 가치를 논함으로서 가정 안에서 여성들이 수행해온 노동의 성격을 살폈다. 이 이론은 앞서 언급한 페미니스트들의 논의와는 달리 ‘가정’을 여성들이 탈출해야 할 억압적인 공간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에게 개방된 일자리와 여성들의 지위가 결정된 이유를 근본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공간으로 의미화한다. 이 이론 안에서 가정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재생산 노동에 대한 임금과, 가정 내 젠더분업

12) 실비아 페테리치, 앞의 책, 63-74쪽.

13) 레오볼디나 포르투나띠, 앞의 책, 57쪽.

14) 실비아 페테리치, 앞의 책, 49-50쪽.

과, 가정과 여성을 사적인 것으로 치부하여 젠더 차별을 정당화하는 자본주의 노동시장의 논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근거지가 된다. 이를 통해 가정 내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보다 분명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가정이라는 공간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논의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분석할 박완서 소설들은 여성들의 성취 지위와 임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가정 내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갈등 및 억압과, 이를 해결하는 방식을 주요하게 재현한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의 논의는 박완서 소설이 당시 사회의 젠더차별과 젠더역할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어떻게 그려내었는지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방법론이 될 것이다.

이 논문은 『그대 아직 꿈꾸고 있는가』와 『서 있는 여자』에 나타난 여성들이 가족과 사회와 갈등하고, 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박완서 소설의 “여성문제”의 물질적 토대와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방식을 분석해보겠다. 그리고 박완서 소설이 이러한 사회적 모순을 드러내면서 이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어디서 찾고 있는지 살피고, 이것이 시사하는 바를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2. 젠더 고정관념이 이야기하는 젠더 갈등의 양상

『서 있는 여자』와 『살아있는 날의 시작』에 등장하는 중산층 기혼 여성들은 재생산 노동의 전담 여부와 관계없이, 재생산 노동자라는 여성의 역할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한다. 박완서의 두 소설에 등장하는 세 명의 여성들은 각각 다른 위치에서 가정 내의 자신의 지위를 고민하고 가족 구성원 및 사회와 갈등한다.

먼저, 전업주부로 등장하는 『서 있는 여자』의 경숙은 ‘아내’와 ‘어머니’로서 항상 노력하고 있지만 그 노력이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현실에 낙담하고, 자신의 독자성에 의문을 품는다. 경숙의 공허감은 교수라는 남편

하석태의 지위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경숙은 ‘하석태의 부인’이라는 타이틀이 없는 ‘경숙’ 스스로는 자신을 정의할 정체성을 찾지 못한다. “하석태의 아내가 아닌 자신은 상상할 수 없다는, 그밖의 자신은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다”¹⁵⁾는 경숙의 생각은 하석태가 그녀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위해 중요한 대상임을 보여준다. 경숙은 ‘교수’로서 사회적으로 걸맞은 행동을 가정하고, 이것을 실천함으로써 ‘교수 부인’으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확인한다. 그녀가 연지보다 더 연지의 약혼식을 더 열심히 계획했던 이유는 가족 행사를 ‘교수답게’ 치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중산층 기혼 여성이 자신의 남편의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행동과 격식을 갖추려는 행위는 이 소설 안에서 성차별적이고 성폭력적인 방식으로 비하된다. 정숙은 연지의 약혼식에서 철민에게 줄 예물로 “삼부다이아 반지”를 준비하지만 철민의 부모는 “십팔금 실반지”를 가져왔다. 이러한 불일치와 부조화는 철민 측의 친척인 한 중년남성에 의해 정숙의 허위의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풍자된다. 이 중년남성은 약혼식 자리에서 철민이 초라한 예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결혼은 돈이 제일 중요하지 않다는 ‘교훈’적인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이야기는 남편이 부재중인 기혼 여성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남자를 자주 마주치다가 그 남자와 결국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서 시작한다. 이 여성은 그 남자가 자신에게 연애감정이 있다고 기대하고 키스를 기다린다. 그러나 그 남자는 반지를 훔치려고 그동안 그녀를 주시했었고, 그녀의 반지가 모조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냥 가버린다. 자신의 반지가 모조품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그 여성은 결혼을 취소하지도 못하고 슬퍼하기만 한다.¹⁶⁾ 중산층 기혼 여성의 재물욕과 성욕을 비판하는 이 에피소드는 세 측면에서 문제적이다. 우선, 남편이 부재 중인 기혼 여성은 항상 성관계를 기대한다는 전제 하에 그녀를 범죄 표적으로 삼은 성폭력범에게 알

15) 박완서, 『서있는 여자』, 세계사, 2003, 72쪽.

16) 박완서, 위의 책, 44-45쪽.

리바이를 부여한다. 둘째, 부부간의 신뢰문제로 읽힐 수 있는 모조 결혼 반지 문제를 여성의 재물욕을 풍자하는 요소로 사용함으로써 아내를 속인 남편에게 면죄부를 부여한다. 셋째, 기혼 여성은 결혼한 이상 부당한 일을 겪어도 결혼제도를 빠져나갈 수 없다고 전제하여, 결혼제도에서 여성의 불리한 권력관계를 승인하였다. 철민 측의 친척은 약혼식 자리에서 신부 측 모친에게 무례하게 행동했지만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재현은 당시 중산층 기혼 여성은 무위도식하면서 고기품과 일탈을 꿈꾸는 비난의 대상이라는 낙인과,¹⁷⁾ 부부관계에 존재하는 불평등한 젠더 권력관계가 부부의 친지들의 관계까지 규정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아래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는 배경에는 남성들이 중산층에 오를만한 고임금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독점하는 당시 한국의 임노동시장 구조와도 무관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남성들만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그것을 내면화하여 안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편으로부터 아내로서의 자격을 승인받아야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도록 유도하였다. 경숙의 성적 매력 관리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경숙의 외모는 딸인 연지와 “자매같이 보이는 모녀”¹⁸⁾일 정도로 나이 들어 보이지 않고, 화려하기보다 “청결”¹⁹⁾하다는 인상을 풍긴다. 이러한 경숙의 외모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성적 매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과도하게 성적 매력을 드러내지 않는,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중산층 기혼 여성의 외모이다.²⁰⁾ 당시 여성의 외모는 당사자의 자기만족이 아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남편에게 성적 매력을 잃지 않기 위한 여성의 ‘노력’은 실상 일종의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로서의 의무 혹은 남편에 대한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노동’으로서의 성

17) 전경옥·변신원·김은정·이명실, 『한국여성문화사2: 1945-1980』,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5, 124-152쪽.

18) 박완서 위의 책, 11쪽.

19) 박완서, 위의 책.

20) 전경옥·변신원·김은정·이명실, 위의 책, 131-133쪽.

격은 드러나지 못했다. 경숙의 외모 관리도 자신이 하석태라는 교수에게 성적 매력을 어필하면서 부인으로서의 지위를 확실히 보장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수적인 노동이다. 그러나 하석태는 경숙에게 성적으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공부에 몰두한다. 경숙은 자신에게 무관심한 하석태를 왜곡하여 그가 여성 조교와 연애한다고 간주한다. 경숙이 하석태를 부당하게 고발한 이유는 그녀의 존재를 남편에게 승인받으려는 욕구에서 기인한 것이다.

백분의 구십구를 나한테서 빼앗은 게 비록 미스 현도 아니고 그 밖의 어떤 여우같은 계집도 아니고 학문이라 해도 그것이 나에게 시앗이긴 마찬가지예요. 시앗 본 여자는 비참해요. 여자로서 최악의 불행이에요. 더 이상 이런 생활을 계속하고 싶지 않아요. 이혼해요. 나는 하나를 다 주고, 상대방한테는 백분의 일밖에 못 받는 치욕적인 결혼을 일부중사라고 미화시키면서 살기 지겹단 말예요. 나 자신이 불쌍해서 못 견디겠단 말예요.²¹⁾

경숙은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하석태의 무관심으로 인해 형편없는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고 토로한다. 하석태가 더 이상 정숙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 정숙은 자신의 존재를 하석태로부터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석태가 “시앗 본”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정숙에게는 하석태가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하석태에게는 정숙의 존재가 그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위의 인용문에서 경숙이 질투하는 학문이라는 대상은 바로 하석태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중요한 보증물이다. 그리하여 하석태는 그의 불성실함을 토로하는 경숙의 비판을 수용하고,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대신 이혼하지는 경숙의 요구를 받아들인다. 그에게는 학문이 최고의 애착 대상이므로, 경숙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이혼이 최선책이다. 부부 관계를 바라보는 하석태

21) 박완서, 앞의 책, 84쪽.

와 경숙의 서로 다른 시선은 부부관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주부에게 결혼관계가 갖는 절대적인 의미를 보여준다. 주부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그들에게 헌신하면서 살아야 하지만, 이러한 주부의 노동이 ‘사회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주부는 자신의 노동에서 정체성을 찾을 수 없고 자신이 돌보는 대상을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성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주부 노동의 대가가 임금 노동과 달리 물질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주부들은 자신의 노동의 가치를 가족들의 반응에서 찾게 되는 것이다. 경숙이 하석태와의 결혼생활을 “나는 하나를 다 주고, 상대방한테는 백분의 일밖에 못 받는 치욕”이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그녀의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를 남편과 가족에게서만 찾아야 하는 주부의 비극적인 상황을 반영한다.

두 사람의 이혼 선언 이후 하석태가 경숙과 동침하게 않게 되자 경숙은 밤마다 하석태가 자고 있는 서재 방문을 두들기며 그에게 집착하기 시작한다. 아직 결혼 상태인 경숙이 자신의 정체성인 ‘하석태의 부인’임을 증명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석태의 유일한 성관계 파트너라는 사실을 확인받는 것뿐이다. 그러나 하석태는 경숙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연지가 결혼식을 올린 후에 이혼하자고 제안한다. 이혼 선언 이후 하석태와 경숙의 서로 다른 반응은 ‘부부관계’를 지속하는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두 사람의 부부관계와 가족관계의 지속을 위해 필요한 노동은 경숙이 전담하지만, 이 관계의 시작과 끝을 결정하는 결정권자는 남편인 하석태가 쥐고 있는 것이다. 경숙은 이러한 상황에서 반자의적으로 이혼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린다.

가정 내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위상에 대한 갈등의 두 번째는 경숙의 딸 연지에게서 나타난다. 연지는 부모의 불평등한 결혼관계와, 전업주부인 모친이 보여준 부친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평등’한 부부관계를 맺고자 한다. 평등한 부부관계를 위해 연지는 자신의 결혼관에 동의하고, 자신보다 여러모로 사회적 지위가 열등하여 동일시하고 싶지 않은 철민을 결혼상대로 정한다. 게다가 결혼 후에 연지는 임금노동을 담당하

고 철민은 가사노동을 담당하여 기존의 부부관계 내 성역할을 역전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지는 결과적으로 불평등한 부부관계와 가정 내 성역할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두 개의 에피소드가 등장한다.

연지가 기획하는 평등한 부부관계의 시작은 부부 각자가 독립적인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가사노동도 평등하게 분담하는 것이었다. 연지는 부부 각자가 개별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이것을 서로가 존중하며, 나아가 가정 내 역할분담의 쟁점도 타파하면, 기존의 성차별적인 부부관계와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철민은 결혼 전과 결혼 초기에 연지의 제안에 동의하면서, 대학원에 재학하는 동안에는 가사노동을 전담하기로 약속한다. 그러나 이 부부는 ‘남편’이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아내’가 생계부양자로서 가게 경제를 책임지는, 기존의 성역할과 다른 부부 역할을 서로가 불편해하고, 전통적인 부부 성역할을 지지하는 사회 질서와 불화를 빚으며 문제는 발생하기 시작한다.

연지는 ‘평등’한 부부의 역할분담을 주장한 당사자이지만, 이러한 역할분담을 불편해한다. 행주냄새가 나는 철민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철민을 ‘매력’ 없다고 느낄까봐 불안해하고, 철민의 친구들이 집을 방문하면, 철민 대신 술시중과 가사노동을 전담하였다. 이러한 연지의 생각은 남성의 ‘매력’은 여성의 역할로 규정된 가사노동을 하면 반감되고, 남편 친구들 앞에서 남편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남편에게 가사노동을 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또한 무임금으로 행해지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사회의 차별적인 시선을 그대로 내면화하고 있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연지는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평등한 부부상과 그 이상과는 다른 자신의 행동 및 솔직한 심경 사이에 모순을 발견하고 괴로워한다.

미안해 할 거 없어. 그는 지금 열다섯 사람 몫의 설거지를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넌 어젯밤 늦도록 열다섯 사람 몫의 술안주를 장만하고 열다섯

사람의 술시중을 들었던 말야. 그리고도 늦잠도 좀 못 자고 출근을 하고 있지 않아? 미안해 할 사람은 남편이지 네가 아니란 말야. 이렇게 자신을 타 일러봤지만 미안해 하는 마음이 깨끗이 떨쳐지는 건 아니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부터 홀로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한 건 자신의 일시적인 환상일 뿐일지도 모른다 생각이 그녀를 불안하게 했다.²²⁾

인용문은 연지가 지난 밤 철민이 벌인 술자리에 대한 뒷정리를 철민에게만 맡기고 출근하면서 느끼는 모순적인 감정을 잘 보여준다. 연지는 월요일 출근을 앞둔 일요일 오후부터 밤까지 철민을 방문한 그의 친구들을 위해 음식을 하고 술시중을 들었고, 그들의 대화에는 전혀 참여하지 못했다. 연지는 일요일에 자신이 느낀 소외감과, ‘평등한’ 가사노동 분담 규칙과는 달리 ‘불평등하게’ 가사노동을 전담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이 그녀의 일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 이 소설은 ‘평등’하게 살고 싶지만 연지 개인이 성차별적인 사회에서 홀로 ‘평등’하게 살기에는 그녀도 사회의 많은 성차별을 내면화해버렸음을 제시한다. 철민의 친구들이 떠난 월요일 아침, 연지가 “꼭두새벽부터 여자가 채수없게서리”²³⁾, “출근이란 화장할 필요가 없는 남자가 할 것”²⁴⁾과 같은 생각들을 무심결에 되뇌며 자신의 모순을 감득하는 장면들은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 안에서 한 개인이 여성으로서 자신을 긍정하고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젠더와 관계없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기획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연지의 결혼생활은 결혼 전에 연지가 품었던 욕망이 사회에 성차별이 존재하는 이상, 그것의 실현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지 실감하도록 만든다.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연지는 서재에서 침착하게 독서에 열중하는

22) 박완서, 앞의 책, 138쪽.

23) 박완서, 앞의 책, 135쪽.

24) 박완서, 앞의 책, 139쪽.

하석태와, 서재의 문을 두드리며 애타게 하석태를 부르던 경숙을 보고, 자신은 성욕이나 다른 유혹을 물리치고 학문에 열중하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고 결심한다.²⁵⁾ 그러나 연지가 결혼 후에 여성의 성역할에 순응하면서, “여자가 아버지처럼 살기가 얼마나 가당치 않은가를 몸소 아프게 체험”²⁶⁾한다. 연지의 경험은 현재 사회가 기혼 여성에게 남편과 가정에 충실할 것을 전제하고 운영되는 이상, 결혼 제도가 규정하는 여성의 역할과 지위로부터 벗어나, 사회의 성취지위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삶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지는 재생산 노동의 젠더를 인식하고, 이 젠더의 전형적이고 보수적인 관계를 타파해야한다는 생각이 강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부부간의 가사노동을 평등하게 분담해야한다는 이슈에만 집중하여 섹슈얼리티의 불평등한 노동 분할을 간과하였다. 철민은 연지가 제안한 ‘평등한’ 부부관계를 맺자는 결혼계약을 승인하기는 했지만, 섹슈얼리티의 측면에서 철민은 ‘가부장’으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성폭력적 성관계를 주도하면서 반복적으로 확인한다. 연지도 철민의 성관계 방식을 일방적으로 따르면서 철민을 만족시킨다. 철민의 성폭력은 철민의 사망한 부친을 기리는 장례식장에서 여러 친척들과 함께 쪽잠을 자면서도 일어나고, 그 결과는 연지의 임신과 낙태였다. 연지는 철민이 성행위를 시도하는 방식에 불만이 없지는 않지만 이를 철민이 가부장권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섹슈얼리티도 가사노동처럼 부부관계의 의무로서 일정부분 노동의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지는 이것을 ‘평등’한 부부관계를 위해 분담해야 할 영역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섹슈얼리티는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는 고학력 중산층 여성의 허위의식이 드러난다. 연지는 그녀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을 때 나타난 철민의 반응을 보면서 섹슈얼리티와 부부간의 권력관계의 상관성을 재성찰하기 시작한다.

25) 박완서, 앞의 책, 148쪽.

26) 박완서, 앞의 책.

(전략) 그러나 마지막 고비에 피임기구를 챙길 정신만은 있었다. 매일매일 약을 챙겨 먹는 일에 도무지 자신이 없는 그녀는 철민에게 피임기구를 쓰도록 하고 있었다.

연지는 철민을 밀어내면서 머리맡의 작은 문갑 서랍을 열려고 했다.

“안돼.”

철민이 폭군처럼 난폭한 시선으로 연지를 노려보며 말했다.

“안되다니 뭐가?”

“글쎄 필요 없다니까.”

철민은 문갑 서랍을 열려고 휘젓는 연지의 팔을 아프게 비틀고는 사정없이 연지에게로 돌진했다. 연지는 이 예기치 않은 상태에서 기겁을 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 반항했지만 야수처럼 으르렁거리는 철민에게 당하기엔 우선 힘이 부쳤다.

이윽고 철민은 입가에 회심의 미소를 띠고 담배를 피워 물었다.

“어쩔 그럴 수가 있어?”

“우린 부부야, 난 못할 짓 한 거 하나도 없어.”²⁷⁾

“아니, 그게 아니구. 임신인 걸 알자마자 곧 중절수술을 했죠 생각나요? 여름에 나..”

연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철민의 손바닥이 사정없이 연지의 따귀를 후려치기 시작했다.

“누구 맘대루? 응 누구 맘대루?”

(...)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해.”

철민은 차가운 얼굴로 연지를 노려보며 말했다.

“필요?”

“이제 와서 시침 때도 소용없어. 잘못된 줄 알았으면 다시는 안 할 기분

27) 박완서, 앞의 책, 194쪽.

도 아니지만 말야.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야. 내 일생에 이런 큰 충격은 처음이었어. 어떻게 네가 내 자존심을 그렇게 악질적으로 짓밟을 수가 있나?”²⁸⁾

첫 번째 인용문은 연지가 성관계 전에 피임을 시도하자, 철민이 강제로 저지하고 성관계를 이어나가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연지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되고 철민은 자신의 의사를 물리적 힘을 사용하여 관철시킨다. “회심의 미소”는 철민이 자신의 폭력적 행위가 잘못되지 않았으며, 폭력으로 연지의 의사를 꺾었다는 만족감을 드러낸다. 두 번째 인용문은 연지가 낙태 사실을 철민에게 밝히자, 철민이 그녀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철민은 연지가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는 이유로 분노한다. 이상의 두 인용문은 철민이 부부가 평등하다는 의식에 동의했기 때문이 아니라, 가부장권을 보장해주는 가장 중요한 영역을 섹슈얼리티로 인식했기 때문에 결혼 계약을 승인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인용문은 평등한 부부관계에서 섹슈얼리티가 가지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철민은 연지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소유권’을 침범 받지 않는 이상 연지의 성노동을 일방적으로 착취하면서 부부관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연지는 자신이 섹슈얼리티를 외면하고 하석태와 같이 다른 정체성에 자신의 존재가치를 부여하면 자신의 독자성을 지키면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었으나, 오히려 그녀가 경시했던 섹슈얼리티는 부부간의 젠더 권력관계를 규정하는 핵심으로 나타난다. 연지는 그녀와 하석태의 젠더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다. 연지는 하석태와는 달리 철민의 성적 요구를 통제할 권력이 없고, 이는 섹슈얼리티의 젠더 권력관계와 관련된다. 하석태를 향한 정숙의 반복적 구애는 다른 한편으로는 하석태가 정숙의 섹슈얼리티에 소유

28) 박완서, 앞의 책, 197쪽.

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지는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한 채 섹슈얼리티를 외면하고 임금노동이나 가사노동과 같이 가정 경제의 영역에서의 평등만을 생각한 것이다.

연지와 철민의 사례는 경제력만이 가정 내 부부의 불평등한 젠더 권력 관계의 물질적 토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한 가정에 유폐되어있는 부부 혹은 가족의 관계는 이들의 ‘사적인’ 관계로 규정되지 않고, 당대의 사회 질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포르투나띠는 사랑과 같은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수사로 점철되어있는 가족관계를 사회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가정에서의 무급 재생산 노동이 자본주의 운용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 무급 재생산 노동이 젠더에 따라 분할된 양상을 규명할 때 자본주의적 착취 구조를 명확히 분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²⁹⁾ 박완서 소설은 명시적으로 가족 관계를 사회 구조의 일부로서 객관화할 필요성까지는 아니지만, 개인의 노력이 사회 구조의 일부인 가족관계를 쉽게 재편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제시한다.

마지막 사례인 『살아있는 날의 시작』의 청희는 가정 내에서 자행되는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족 문화와 갈등하지 않는 듯이 보이지만, 실상 그녀는 이 문화에 비판적이고 반감을 가진다. 하지만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직접적으로 대결할 용기가 없는 청희는 자신의 반감을 항상 감추고, 가족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아내, 어머니, 며느리로서의 노동을 전담한다.

그래서 그 여자는 고통스러워하는 체하기 시작했다. 인철이 그 동안 충분히 매력적인 남성이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그 여자는 허기진 여자를 연기했다.

“여보 우리 단둘이 어디 여행이라도 가요, 네. 출창 이렇게 바라다만 보고 살 순 없는 거 아녜요? 저도 여자란 말예요. 하룻밤만이라도 절 집밖으로 데리고 가줘요.”

29) 레오뵘디나 포르투나띠, 앞의 책, 195-197쪽.

이렇게 애걸을 했다. 애걸은 거듭된 후에야 받아들여졌다. 그들의 주기적인 집밖의 잠은 이렇게 해서 시작됐다. (...)

그리고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섬뜩한 느낌으로 시어머니 송 부인을 떠올렸고 그분이야말로 그들 부부가 부부일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까닭처럼 느꼈다. 밤마다 신선처럼 천진하고 우아한 잠으로 그들 부부 사이를 차단하고 그들 부부의 잠을 집 없는 잠으로 미는 송부인을. 곧 소멸의 날이 멀지 않을 송부인을.³⁰⁾

인용문의 청희는 남편 인철이 기대하는 대로 인철의 사랑을 갈구하는 부인의 역할을 수행한다. 청희의 행동은 인철과 갈등 없는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며, 인철이 이것에 만족함으로써 두 사람의 부부관계는 외부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인용문의 청희는 송 부인을 두 사람의 부부관계를 잇는 연결고리로 연상함으로써 남편과의 성관계가 ‘사랑’이 아닌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가부장적 사회가 원하는 ‘정상’ 부부상을 순종적으로 따르던 청희의 행동은 결과적으로는 ‘정상’ 부부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부부사이를 소원하게 만들었다. 이 소설은 청희를 따라가면서 사회가 만들어놓은 ‘정상’ 가족상은 여성들의 노동을 요구하고, 이 노동은 궁극적으로 가족 간의 사랑이 가족 유대의 밑바탕이라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노출시킨다는 것을 폭로한다.

가족들 간의 실질적인 ‘관계’가 아닌 이데올로기가 지탱해주는 가족 관계의 취약성은 청희가 자식들에게 노후를 부양받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비판하면서 제시된다. 청희는 송부인이 맏아들과 맏며느리에게 돌봄을 받으므로 행복한 노후를 보낸다는 인철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한다. 그러나 동시에 기존 이데올로기가 원하는 ‘맏며느리’ 상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한다.

30) 박완서, 『살아있는 날의 시작』, 세계사, 2002, 28쪽.

“우리 어머니는 이날이때 만아들 만며느리한테서만 진지 얻어잡수셨어. 앞으로도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건 변함이 없겠지. 그만하면 행복하신 거 아냐?”

“노후엔 어떻게든 만아들 밥을 얻어먹어야만 행복하다는 미신을 빼도 어머니는 과연 행복하셨을까요?”

“그게 어째 미신이야?”

“달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게 만드니까요. 어차피 당신 어머니 대에서 끝나야 할 남은 속임수니까요.” (…)

“아뇨, 당신 어머니는 제 십자가예요. 끝까지 지겠어요. 그러나 앞으로 제가 남의 십자가가 되긴 싫어요. 전 노후의 삶도 제각기 환경이나 능력과 타협해 가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들하고 살든, 딸하고 살든 부부끼리 살든, 혼자 살든, 양로원에서 친구끼리 살든……, 이것저것을 좋을 대로 섞어서 살든.”³¹⁾

청희는 노인은 아들과 그 아들의 아내로부터 보살핌을 받아야만 행복하다는 기존 사회의 통념을 “미신”으로 규정한다. 이 “미신”이라는 단어는 노년의 행복을 단일하다고 규정하는 인철의 생각을 비판하는 단어로 매우 적절하다. 개개인의 욕망은 모두 다르고, 행복한 인생의 노년을 보내는 방식도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특정한 방식으로 노년을 보내는 방법을 선호할 것이라는 인철의 생각은 잘못된 믿음, 즉 ‘미신’이다. 청희는 사회가 이상화하는 가족상과 인생의 ‘행복’에 문제 제기하며 기성 사회 질서에 전면적으로 맞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의 ‘반란’은 송 부인이 사망할 때까지 돌봄노동을 제공하겠다고 선언하여 사회적 통념을 따르는 결론에 이른다. 이는 청희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십자가’, 즉 일종의 업보이기 때문이다. 이 업보란, 그녀가 만아들과 결혼했고 이 같은 “미신”이 존재하는 사회에 살기 때문에 발생한다.

31) 박완서, 앞의 책, 179쪽.

청희는 이렇듯 사회 질서에 전혀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감내하기를 자처한다. 이 소설은 청희를 통해 ‘아내’의 역할을 담당하는 가족 구성원의 노동력 착취를 기반으로 삼아 유지되는 가족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동시에, 이러한 가족 이데올로기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을 동시에 제시한다. 이 이데올로기를 생산한 것은 결국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할 경우 주어진 환경이 아닌 새로운 환경을 구축해야만 한다. 이 소설에서 인철은 시종일관 청희가 가족관계에 대한 항의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이런 그의 태도는 구조와 개인의 싸움에서 개인이 쉽게 취약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대 젠더질서와 사회구조가 가부장으로서의 인철의 권위를 보장하는 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청희에게 가부장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젠더 갈등의 해결과 젠더 모순의 노출

『서 있는 여자』와 『살아있는 날의 시작』의 여성 인물들은 가족관계가 온전히 그들의 노동에 의존하여 지속되는 상황 앞에서 처음에는 침묵하고 홀로 방황하지만, 점차 이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한다. 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같지 않고, 어떤 측면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해결’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 있는 여자』의 경숙은 하석태가 제안한 이혼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후, 이혼 이후의 삶을 기획하기 위하여 이혼한 그녀의 두 친구 집을 ‘이혼 순례’차 방문한다. 그러나 막상 경숙이 방문한 두 친구의 생활은 경숙의 이혼 결심을 되돌리고 다시 하석태의 품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이 소설은 이혼 여성들의 생활과 이들의 심리를 통해 이혼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이 편견을 내면화한 이혼 여성들의 자기혐오를 보여준다. 경숙이 제일 먼저 방문한 친구는 의학박사로 산부인과를 경영하는 순님이다.

순님의 집이 문 열어놓고 사는 집 풀인 것처럼 순님이 역시 영락없이 문 열어놓은 여자 풀이었다. 경숙은 고된 대로 자신을 푹푹 오므리고 살아온 자기 자신에게 자부심 비슷한 걸 느꼈다.

비경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여자는 비참했다. 경숙은 자신 속엔 아직 비경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싶고 그게 느닷없이 짜릿한 자기애가 되고 있었다.³²⁾

순님을 바라보는 경숙의 시선은 당시 이성애적 구도 안에서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무엇이며, 그 자질을 벗어날 때 부여되는 낙인을 제시한다. 경숙은 자유분방한 자세로 잠든 순님의 모습을 보고 순님을 “문 열어놓은 여자”라고 비난한다. 경숙의 비난은 여성은 항상 몸가짐을 압전하게 단속해야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리고 이 단속의 목적은 사람들, 특히 남성들에게 자기의 몸을 잘 다스리는 여성으로 보이기 위함이다. 즉, 경숙은 여성을 보여주는 대상으로 전제하고, 여성은 잠자는 모습까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항상 가꾸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경숙이 순님과 달리 기혼자이며, 남편이 항상 그녀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도록 자신의 외모와 몸가짐을 갈고닦아왔다는 자부심에서 비롯된다. 실상 하석태 없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숙이 높은 재력과 성취 지위를 가진 순님을 마음껏 비난하고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그녀가 ‘기혼 여성’이고 순님은 ‘이혼 여성’이라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경숙이 가지고 있는 이혼 여성에 대한 낙인과 편견은 상당부분 순님도 공유한다. 순님은 경숙이 도착한 첫 날, 이혼한 경숙을 부러워하는 건달 남편을 둔 손위 의사에 대해 언급한다. 손위 의사는 자신의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환자들이 있었는데, 건달 남편이 그들을 제압하여 일이 해결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남편을 자랑스러워했다. 경숙은 “여태껏 그 언니만은 그래도 날 부러워했는데, 이제부턴 내가 그 언니를

32) 박완서, 『서 있는 여자』, 세계사, 2003, 175쪽.

부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막 미치겠는거야”³³⁾라며 자신의 분노를 표시한다. 이 분노는 순님이 이혼한 자신의 삶을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이혼한 여성에 대한 낙인, 즉 ‘남성’의 도움 없이 혼자 살아가는 여성은 고생스러우리라는 낙인을 내면화했기 때문에 나타난다. 순님의 분노는 당시 이혼한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사회에서 받는 멸시와, ‘남성’ 보호자가 없는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당대 사회적 편견의 결과이기도 하다.

경숙의 두 번째 ‘이혼순례지’는 대전에 있는 은선의 집이다. 은선은 이혼 후 위자료로 받은 두 채의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으로 부유하게 생활하지만, 은선의 이혼한 남편은 자녀 양육권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후 재산을 탕진했다. 경숙은 순님 다음으로 은선이 이혼한 여성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영위한다고 보고 그녀를 찾아가지만, 은선의 집에 머물면서 은선의 생활을 지켜본 후 ‘하석태의 부인’으로 살아가겠다고 최종적으로 결심한다. 경숙은 은선에게 친구로서가 아니라 ‘하석태의 부인’으로서 종종 훈계한다.

“그럼, 그럼. 그리고 며칠 쉬었다 가. 이왕 나온 김에 재미 좀 보고 들어가는 거야. 까짓거. 시쳇말로 한강물에 배 떠나간 자국 있다던.”

은선이 육감적으로 눈웃음을 치며 말했다. 아들을 떠나 보내고 무너져 내리듯이 주저앉았을 때의 은선과는 판판이었다.

“그게 무슨 소리니? 혼자서 돌아다니한다고 사람을 그렇게 우습게 취급하면 나 그냥 갈란다. 너 아주 못쓰겠구나. 나이 값은 좀 하렴. 아무리 따로 살지만 자식들 생각도 하고.”

경숙은 스스로 생각해도 놀랄 만큼 당당하고 의젓하게 은선을 나무랐다.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석태 교수 부인으로서의 체통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다. 하석태 교수 부인이 아닌 자신은 뭔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33) 박완서, 위의 책, 173쪽

아무것도 아닌 허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반세기 가깝게 제단에 열심히 살아온 생애가 하석태 교수 부인이란 상대적인 자격만 빼면 아무것도 없는 허탕이란 것은 어처구니없는 사실인 동시에 두려운 사실이기도 했다.

경숙은 만약 자기가 하석태 교수 부인의 자격을 포기하고 김경숙이가 되었을 때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을지 상상해보았다. 서울역 광장에 오도카니 선 가출 소녀에 대한 사회의 눈초리와 별로 다르지 않은 냉혹한 경멸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게 뻔했다. 이혼해도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을 자신 때문에 하석태 교수 부인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미처 생각하려들지 않았던 자신의 경솔이 한심했다.³⁴⁾

이 인용문에서 경숙이 은선보다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더 권위 있는 자의 위치를 자임하는 배경은 돈도 그 무엇도 아닌 ‘교수’라는 높은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겸비한 자의 ‘아내’라는 사실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하석태의 아내’라는 외피는 경숙이 ‘이혼순례’를 통해 벗어버리려고 했던 것이다. 경숙은 은선과 대화하면서 오히려 이혼하려고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다시 ‘아내’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한다. 경숙은 ‘하석태의 아내’가 아닌 자신을 “서울역 광장에 오도카니 선 가출소녀”로 묘사한다. “가출”이라는 단어는 한 사람이 자신이 머물던 주요 주거공간을 자의로 벗어났고, 이 곳 외에 정주할만한 다른 곳을 아직 찾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경숙에게 이혼은 그녀가 있어야 할 ‘결혼’이라는 제도적 보호망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의미한다. 설령 그 제도 안에서 전쟁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사회는 그 제도 밖을 나온 사람들을 “냉혹한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다. 경숙은 사회가 제시한 ‘정상성’의 테두리 밖에서 살아가는 ‘이혼여성’상을 목도한 후, 오히려 그녀가 수십년간 괴로워한 결혼생활이 그녀에게 보장해준 특권을 자각한다.

경숙이 ‘하석태 교수 부인’이라는 타이틀의 상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34) 박완서, 위의 책, 252쪽.

그녀가 그동안 살아온 이력들이 이혼 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이다. 경숙은 결혼 후에 ‘하석태 교수 부인’으로 살면서 가족들을 위한 재생산 노동을 전담해왔다. 그러나 이런 여성들의 재생산 노동이 비가시화되고 그것이 생산하는 가치를 은폐하는 자본주의 시스템과 가부장적 사회 구조 하에서는 그녀의 노동은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재생산 노동이 생산하는 가치를 부정하는 뿌리 깊은 편견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이분법을 재생산하면서 사적 영역을 사랑을 매개로 성립된 자율성의 공간으로 간주한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이분법과 사적 영역에 대한 편견은 주부들이 ‘가족’을 벗어나 자신들이 지금까지 생산해온 생산물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린다. 이것은 주부들이 가정의 ‘노동자’로서의 정체성 대신 가족을 돌보는 자로서 정체성을 갖도록 강제한다. 이 소설은 가부장적 가족구조에 패배한 경숙을 통해 사회가 결혼제도와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여성들을 결혼제도 안으로 순치시키는 매커니즘을 드러낸다.

앞선 인용문에서도 잠시 언급되었지만, 이혼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비하하고 선정적으로 다루는 사회의 시선은 경숙이 이혼을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경숙은 남편이 아닌 남성과의 성관계를 제한하는 은선에 게 혐오감을 표시하고, 자신은 한 남성과 배타적 성관계를 하는 기혼 여성이며 이것을 자신의 도덕적 우월성을 보장하는 지표로 삼는다. 여성의 ‘도덕적인’ 성관계는 결혼 내에서만 이루어져야한다는 가부장적인 성도덕은 다양한 남성과 성관계를 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이혼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비하하는 원인이다.

“드리웁어유. 아마 돈 떨어지믄 오는가 봐유. 지 이수믄 오늘 주제에 밤에 올 걸 짐삼때부터 연통을 해가지고 질 이렇게 필쩍필쩍 뛰게 헌다니게유. 사모님은 또 어땡구유. 녀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꼭 원님헌티 수청 들러 들어가는 날의 기생 모양 온종일 몸단장을 해쌍는데, 이따 좀 보셔유. 사우난가 뭔가 워땡게 생겼길래 십 년은 더 젊어져서 들어올 테니께유. 살이 야

들이들 반짝반짝하는 게 증말 눈부셔유. 그 난리니 아유 우세스러워.”

“걱정이네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재산 날릴까 봐 걱정이고 혹시 아이 들한테 들킬까 봐도 걱정이고…”

“위매 사모님두, 여태껏 안 들키고 배겼간디유. 꼬리가 이만저만 길어야 지유. 자그마치 오 년 짜여유. 아이들이 못돼먹었다고만 나무랄 것도 아니 구면유. 엄마가 외간 남자허구 놀아나는 걸 보구 정 안 떨어질 자식이 어딴 대유.”

“저런 찢찢,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 그렇지만 정식으로 이혼한 엄마라는 걸 아이들도 인정해줘야지 않을까. 아버지도 벌써부터 새 장가 들어서 자식 낳고 산다면서요?”

“그야 그렇지만 남자허구 여자허구 같은 감유.”³⁵⁾

이혼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은선의 집 가정 부의 입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은선의 집 가정부는 은선이 애인과 의 성관계를 위해 몸단장을 하는 것을 두고 “원님헌티 수청 들러 들어가는 날의 기생”, “우세스러워”라며 비하한다. 특히 전자는 여성혐오적 시 선을 내면화한 발언이기도 하다. 첫째로 기생의 노동이 사회적으로 바람 직하지 않으므로 기생은 사회적 비난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전제와, 둘째 로 이 기생의 노동에 빚대어 은선이 결혼하지 않은 자와 성관계를 기대 하며 몸치장을 한다는 비난이 겹쳐져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정부는 은선 의 자녀들이 “외간 남자허구 놀아나는” 은선의 연애로 인해 상처를 받고 그녀를 멀리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경숙이 은선의 남편도 재혼했다고 언 급하자 가정부는 “남자허구 여자허구 같은 감유”라며 섹슈얼리티를 바라 보는 성차별적인 시선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가정부의 발언은 당시 젠더에 따라 허용되는 섹슈얼리티의 임계를 보여주고 있다. 남성들의 성욕은 어떤 상황에서도 해결되어야 하지만 여성

35) 박완서, 위의 책, 267-268쪽.

들의 성욕은 결혼제도 안에만 있어야 하며, 결혼제도 밖으로 나가려는 여성들의 성적 욕망은 억압되어야 한다. 이는 ‘도덕’의 문제로 다뤄지며, ‘도덕’의 경계 밖으로 벗어난 여성들은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다.³⁶⁾ 한 여성이 ‘어머니’인 경우에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제한이 더 엄격해진다.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도덕적’이라는 칭송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아닌 남성과는 성관계를 하면 안 되고, 한다 면 아이들이 이 여성을 비난해도 마땅하다. 실상 은선은 여러 남성이 아닌 한 남성과 몇 년 동안 연애할 뿐인데도 연지를 향한 자녀들의 냉담한 시선은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사회의 낙인을 반영한다. 경숙은 은선의 집에서 이혼한 여성에게 쉽게 부여되는 다양한 낙인들을 목격하고, 제도 안의 안전한 삶을 위해 하석태와의 결혼을 유지하기로 결심한다.

경숙이 이혼한 친구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한편으로는 이혼한 여성들은 불행하고, 여성들은 결혼 제도 안에 있어야한다는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과 국가가 만들어놓은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맞춰진 사회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여성들은 높은 성취 지위와 돈이 있어도 사회적 비난을 면치 못한다는 성차별적인

36) 1970-80년대에 걸쳐 한국정부는 ‘중동건설 프로젝트’라는 명분으로 한국의 남성 노동자들을 사우디아라비아 등 서아시아 지역으로 파견하였다. 이 당시 한국정부는 성적 유희를 즐길 시설이 전무한 공사 현장에서 남성 노동자들이 성욕을 해소하지 못하여 노동쟁의 등 항의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다. 그로 인해 당시 흔치 않고 고가의 VTR을 각지에 파견 노동자들의 숙소에 설치하여 노동자들이 단체로 포르노그래피를 시청하면서 성욕을 해소하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반면, 정부는 노동부 차원에서 해외 파견 남성 노동자들의 아내들을 ‘해외 취업자 가족보호 캠페인’이라는 명목 아래 교육하고 통제하였다. 당시 한국사회에서는 아내들이 ‘간통’, ‘도박’ 등 파견 노동자들의 돈을 탕진하고 이들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더 강한 사법적 처벌을 내린다는 믿음이 만연할 정도로 파견 노동자들의 아내를 감시하는 시선은 상당히 강했다. 파견 노동자들의 아내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시선을 내면화하여, 외모 치장을 하지 않거나 다른 여성들과 함께 다니는 등 생활과 이동의 자유를 스스로 제약하였다.(최성애, 『경제개발과 젠더의 정치학: 1970-1980년대 ‘중동건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정진성·안진 외, 『한국현대여성사』, 한울아카데미, 2004, 95-119쪽) 이것은 국가권력이 섹슈얼리티를 젠더에 따라 다르게 통제하는 하나의 사례이다.

사회구조를 고스란히 노출시키기도 한다. 순님과 순님의 동료인 손위의 사는 모두 남편보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높은 권위가 부여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둘 모두 남편들에게 금전과 재생산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었다. 이것은 은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녀는 자신의 애인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와 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혼여성’이라는 자격 지심으로 인해 애인에게 수동적으로 금전과 재생산 노동을 착취당한다. 『서있는 여자』에 등장하는 이혼여성들의 사례는 현재의 사회 구조가 가정 내에서 남성의 특권을 전제하는 이상, 개별 가정 내의 성역할 구도의 변화가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서있는 여자』의 연지는 이러한 사회 구조를 재빨리 깨닫고 현재의 사회구조 하에서 부부의 ‘남녀평등’은 달성되기 어려운 이상이라는 판단 아래 이혼을 결심한다.

부모가 그를 탐탁지 않게 여기기 전부터, 사람들이 수군대며 비웃기 전부터 나는 알고 있었어. 그가 나보다 못하다는걸. 나는 그의 나보다 못한 점을 사랑하거나 연민함이 조금도 없이 그냥 이용이나 해먹으려 했던 거야. 그걸 이용해 거저먹기로 남녀평등을 이룩해보려 했던 거야. 실력이나 인격으로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남자를 일부러 골라잡아서 평등한 부부관계를 이룩해 보려고 마음먹는 거야말로 잘못의 시작이었다. 그것은 평등에 대한 크나큰 오해였고 자신에 대해 더러운 모독이었다.³⁷⁾

성평등한 결혼을 향한 연지의 지향은 역설적으로 결혼관계 내에서 부부가 평등해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자신보다 실력이나 인격 면에서 열등한 남성과 결혼해야만 ‘평등’한 부부관계가 가능하리라는 연지의 예상은 부부관계에서 성차별은 피할 수 없으므로, 남성이 ‘조건’ 면에서 여성보다 열등해야 평등한 관계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37) 박완서, 앞의 책, 342-343쪽.

의미한다. ‘평등’의 기본적 조건은 차별을 배제한 것인데, 연지가 가정하
부부관계의 ‘평등’은 차별을 전제했으므로 처음부터 어불성설이었다. 연
지 자신이 이미 평등한 부부관계의 존재 가능성에 회의적이었으므로, 연
지의 결혼은 처음부터 평등과 거리가 멀었다. 연지는 자신보다 객관적 조
건이 열등한 철민과 결혼하면, 그의 열등함이 젠더 권력관계를 상쇄시켜
평등한 부부관계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사회에 존재하는 남
성 권력은 결혼관계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연지가 짐을 챙겨 철민
과 함께 살던 집을 나갈 때, 연지에게 쏟아지던 철민의 폭력은 남성의 객
관적 조건의 열등함이 그들의 육체적 힘이나 사회적으로 부여된 남성 권
력을 억누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평등한 결혼관계의 성립불
가능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연지의 평등한 결혼실험은 실패로 판명되
고, 이 결혼관계는 이혼으로 마무리된다. 이혼한 후 연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글을 쓴다.

그러나 그녀는 힘주어야만 글씨가 박혀 나오는 게 되레 마음에 들었다.
딱 딱 딱, 구식 기계는 거의 말발굽 소리를 내면서 맵시가 과히 아름답지
못한 글씨를 찍어냈다.

나의 고독은 순수하고 감미롭다. 사랑조차도 들이고 싶지 않을 만큼. 나
의 고독이 적어도 지금보다는 덜 감미로워져야 새로운 사랑을 꿈꾸기라도
할 것 같다.³⁸⁾

연지의 글쓰기는 이 소설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연지의 직업은 기
자이기 때문에 항상 자신이 취재한 대상에 대한 글만을 써왔다. 소설에
나타난 그 하나의 예로, 이혼 전에 연지는 당시 여성운동계에서 유명한
인물인 현순주를 직접 인터뷰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기사화하였다. 연
지는 잡지 편집회의에서 현순주를 적극적으로 인터뷰 대상으로 추천했던

38) 박완서, 앞의 책, 347쪽.

만큼, 상당히 기대를 하지만 직접 만나보니 그녀는 연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여성운동가상과는 거리가 있었다. 연지가 현순주를 취재한 목적은 여성운동과 여성 명사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함이었지만, 현순주는 연지의 목적을 충족시켜줄만한 인물이 아니었다. 어떤 대상을 ‘대리’해야만 하는 기자라는 그녀의 직업은 지면에 여성운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 대신, 현순주의 의견을 편집해서 게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녀가 기사를 기획한 목적을 완전히 달성할 수 없었다. 자신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누군가를 ‘대리’하는 역할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내’의 역할과 유사하다. 연지의 직업은 마치 결혼제도 안에서 연지에게 부여된 역할의 은유로 보이기도 한다.

연지의 이혼이 연지의 글쓰기로 이어진다는 설정은 연지가 이혼 후 ‘대리하는’ 삶을 벗어나고 있다는 은유로 해석할 수 있다. 남편을 대리해야 하는 결혼 관계로부터 빠져나오고, 자신이 속한 가부장적 구조를 자각한 여성으로서 연지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글쓰기로 ‘대리하는 삶’을 강요하는 가부장적 구조와 대결한다. 연지의 글쓰기는 ‘힘주어야만’ 써지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는 여성이 목소리를 낸다는 것의 어려움을 상징한다. 연지가 쓴 글에도 목소리 내기에 수반되는 어려움이 드러나 있다. 인용문에 언급된 연지의 글 내용을 보면, 연지는 ‘사랑’과 ‘고독’을 양 극에 있는 것으로 설정하고, 자신은 고독이 감미롭기 때문에 사랑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한다. 소설 안에서 이성애자로 묘사되는 연지는 사랑을 시작하는 순간 젠더 권력관계의 굴레 안에 다시 들어가게 된다. 자본주의 체제하의 가부장적 가족질서를 경험한 연지에게 사랑은 이 질서 안에 다시 들어가는 속박일 수 있다. 연지에게 ‘고독’이 더 이상 감미롭지 않은 상황이란 젠더 권력관계가 고착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과연 가능한 것인가? ‘고독’의 창을 열어젖힌 연지는 창밖의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간절한 유대감”³⁹⁾을 느낀다. 이는 다른 사람들 역시 연지의 고민을 호의

39) 박완서, 앞의 책.

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증거이며, 연지가 ‘고독’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사랑’으로 다가갈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하다. 즉, 이 소설은 연지가 겪는 가족과 사회와의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살아있는 날의 시작』의 청희도 그녀를 착취하면서 운영되는 가족구조에 불만을 느끼고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이혼을 택하는데, 주목할 것은 이혼 그 자체가 아닌 이혼을 택하는 과정이다. 청희가 가족 이데올로기를 조금씩 거부하게 된 계기는 그녀의 미용실에서 일하던 직원 옥희(콩쥐)를 만나면서부터였다. 20세인 옥희는 청희의 미용실에서 조용하고 성실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던 직원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마사지하던 고객의 배를 손톱으로 할퀴다. 옥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용실을 그만두지만, 청희는 이미 그만둔 옥희를 찾아가 사건의 원인을 묻고 다시 일해 달라고 부탁한다. 청희가 옥희에게 느끼는 매력은 순응적으로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공격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콩쥐가 미장원에서 그 일을 저질렀을 때도 그 직전까지 아무런 전조도 없었다. 오로지 땅을 갈아 일용할 양식을 얻는 농부처럼 온종일 살찐 배에 매달려 그 지방층을 빨래 비비듯이 비벼서 틈을 얻어내는 데 성실하고 묵묵할 뿐인 계집애였다. 그런 계집애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살찐 배에 반란을 시도했다. 그 당시엔 별로 눈여겨 볼 새도 없었던 네 줄기의 깊은 손톱자국을 그 여자는 날로 새롭게 떠올리고 전을했다. 그런 반란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싹트고 발작하는 걸까?⁴⁰⁾

이 소설은 옥희가 고객에게 한 행동을 “반란”이라고 명명한다. 이 단어는 청희가 옥희의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준다. 이 소설에서 청희와

40) 박완서, 『살아있는 날의 시작』, 세계사, 2002, 137쪽.

옥희는 학력이나 재력 측면에서는 매우 상반되지만, 두 사람은 상당히 닮았다. 두 사람은 모두 일상에 불만이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큰 불만이 있고, 가족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한다. 옥희는 불만을 참고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하는 그녀의 삶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순간순간 일상 속에서 ‘반란’을 일으킬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 소설은 이 ‘반란’의 힘을 주어진 삶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용기로 그린다. 청희는 바로 옥희가 내포한 ‘반란’을 일으킬 힘에 매혹되었고, 이것은 청희가 항상 가족들에게 느끼던 불만족에 도전할 용기를 조금씩 부여하였다. 그리고 이 용기는 청희가 그동안 송 부인과 인철에게 일방적으로 희생해왔음을 자각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표출된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오랜 세월 그런 인고를 감수한 건 여자는 여자니라, 라는 여자의 운명에 대한 순정에서가 결코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고 만족했다면 그건 시어머니의 자유고, 그 여자 스스로는 어디까지나 남편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 사랑을 믿고 하는 희생이었기에, 그 희생은 상호적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깔고 있었다.

그 여자는 지금도 희생이라는 것에 대해 소녀처럼 아름다운 영상을 가지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상호적인 희생에 한해서였다. 일방적인 희생이란 그건 희생이라기보다는 유린이었다. 그 여자가 자기의 희생이 일방적이었던 걸 깨달자마자 느닷없이 찬물을 끼얹힌 것처럼 소스라치게 엄습해온 것도 무참하게 유린당했다는 느낌, 교묘하게 기만당했다는 느낌이었다.⁴¹⁾

청희는 자신의 부부관계가 사랑하는 두 사람이 평등하게 결합하는 낭만적 사랑⁴²⁾을 바탕으로 삼는다는 믿음으로,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인철의 부당한 요구에 항상 순응하고, 치매에 걸린 송 부인을 돌보아왔다고

41) 박완서, 위의 책, 318쪽.

42) 앤서니 기든스,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배은경·황정미 역, 새물결, 2003, 81-88쪽.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해왔다. 하지만 인철은 청희를 위해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자는 여자니라”와 같은 숙명론적 성차별주의와는 다른 논리로 결혼생활을 이어왔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실상 그녀의 결혼생활도 가부장적인 자본주의 질서 안에 있었고, 그녀의 노동력은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착취당하였다. 실제로 청희는 대학원까지 마치고 대학 전임교원의 문턱까지 갔었던 수재였으나 남편이 같은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던 남편이 그녀가 전임이 될 가능성을 매우 불편해했으므로 강사 자리를 그만둔다. 이때의 선택은 지금까지 정희에게 “까진 피부에 소금을 비비는 것처럼 쓰라릴”⁴³⁾ 정도로 강한 후회로 남아있다. 청희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연구자의 길이 아니라 결혼을 택했으므로 결혼은 그녀가 포기한 선택지보다 더 많은 행복과 안정을 보장해주어야 했다. 소설 전체적으로 청희는 항상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이 놓인 상황을 객관화하려고 애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가족들이 보여주는 구태적인 관습들을 외면한 이유는 바로 그녀에게 결혼은 중요한 가치들과 교환한 결과였기 때문이다.

위 인용문에서 청희는 자신이 일방적인 희생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유린당했다”, “기만당했다”고 느끼지만, “상호적인 희생”은 청희와 인철의 결혼에 약속된 바가 아니었다. 청희 스스로 자신의 결혼이 “상호적인 희생”을 전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것을 청희같은 지식인 여성들이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결혼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자기 합리화의 기제로 읽을 수도 있다. 이런 자기합리화는 청희가 스스로를 근대적이고 선진적인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자임하는 자신감과 관련되어있다. 그러나 청희가 이혼을 선언한 후, 속초로 가는 버스 안에서 흘리는 눈물을 이 소설의 서술자는 “그 여자가 집 나오는 것과 동시에 벗은 부덕이란 탈은 여자가 조상대대로 써내려오는 동안 거의 육화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피흘리지 않고는 벗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⁴⁴⁾라고 서

43) 박완서, 앞의 책, 38쪽.

44) 박완서, 앞의 책, 363쪽.

술한다. 서술자의 시선은 청희가 스스로 가부장주의 및 성차별주의와 거리가 멀다고 자임했던 것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원인으로 제시한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결말은 여성 개인이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우며, 빠져나오려는 시도는 이혼과 고독으로 종결된다는 절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청희의 상태는 과거의 거짓된 이데올로기는 벗어던지고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한결 성장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이제 그녀는 자신의 상황, 그리고 사회가 여성에게 부여한 전형적 역할을 쉽게 벗어던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자각하여 이 현실을 더욱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갖추게 되었다. 이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청희가 기존의 사회질서가 여성에게 부여한 역할을 거부하고 그것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독려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4. 박완서 소설이 발견한 ‘여성 계급’과 ‘여성 문제’ 해결의 전망

박완서의 『서 있는 여자』와 『살아있는 날의 시작』에 등장하는 초점인물들과 이혼한 여성들은 모두 중산층으로 등장한다. 한국사회에서 이혼한 여성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쉽다는 것이 중론이다.⁴⁵⁾ 그러나 두 소설에서 이혼한 혹은 이혼을 고려하는 여성들은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재현은 소설에서 여성인물들의 경제적 계급과 가정 내 계급의 불일치와 모순을 부각하는 효과를 낳는다. 여성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고, 이들 중 다수는 자영업업을 하는 소부르주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여성들은 결혼 관계 내에서는 항상 남편을 위해 재생산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계급이었으며, 어떤 여

45) 김정현, 『저소득 이혼여성의 빈곤화 과정: 가족제도와 노동시장에서의 사회적 배제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8,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012, 69-102쪽.

성들은 자신의 임노동의 대가를 남편을 부양하기 위해 소비하기도 한다. 『살아있는 날의 시작』의 청희와 옥희는 경제적으로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지만, 각자의 가정 안에서 두 사람은 가정 구성원을 위해서 임노동과 재생산 노동을 전담한다는 점에서 ‘노동계급’으로서의 유사성을 공유한다. 『서있는 여자』의 연지 역시 철민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면서도 가장으로서의 지위를 인정 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성노동을 착취당하는 것으로 재현되었다.

또한 박완서의 두 소설은 노동계급으로서의 여성의 지위는 이혼으로 결혼 제도 밖으로 나오면 과연 달라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서있는 여자』의 순님과 은선은 모두 경제적으로 부유하며, 타인에게 선망의 대상이 될만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것은 ‘이혼 여성’이라는 낙인이다. 그녀들은 ‘이혼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변으로부터 멸시의 시선을 받으며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취약해진다. 앞선 김정현의 논문이 지적한대로 이러한 이혼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빈곤한 경제적 상황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 소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여성들까지도 공유하는 사회적 낙인을 강조한다. 이혼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피지배계급 여성들이 사적 영역에 근거한 지위를 버리고 다른 지위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보여준다. 한 개인이 제도 안에서 제도의 질서를 따르면, 제도는 일정한 보호를 제공한다. 그러나 그 개인이 제도를 거부하기 시작하면, 제도가 제공하는 보호로부터 멀어져버린다. 『서있는 여자』의 경숙이 하석태의 태도로부터 인격적 모독을 느끼면서도 다시 하석태에게 돌아간 것은 제도의 보호가 보장하는 안락함을 보여준다.

이 같은 박완서의 소설을 가정 안에서 피지배자로 살아가는 여성의 계급이 이미 사회 안에서 고착화된 것으로 보여주는 텍스트로 읽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박완서가 노동계급 여성들보다 중산층 전문직 여성들에게 보다 주목한 이유는 무엇인가? 나아가 노동 계급과 중산층 여성들의 차이보다 공통점을 더 부각시켜 재현한 효과는 어떠한가? 이 소설을 박

완서의 에세이집인 『서있는 여자의 갈등』과 또하나의문화 동인들과 함께 출간한 『여성해방의 문학?』의 좌담 『페미니즘 문학과 여성운동』에서 드러난 박완서의 주장과 겹쳐 읽을 필요가 있다. 박완서는 『페미니즘 문학과 여성운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글을 쓰다보면 소외되고 억압된 계층에 애정이 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 것 같아요. 민중문학에서 얘기되는 지배자의 억압이 남녀간의 지배와 아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부당한 기득권을 고집하는 것은 똑같다고 보아야지요. 그런데 여성을 제외시킨 채로 민중을 논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이런 민중논의는 불완전한 것 같아요.⁴⁶⁾

박완서는 민중문학이 다루는 지배자의 억압, 즉 계급갈등을 남녀 간의 지배구도와 등치시켜 이해한다.⁴⁷⁾ 엥겔스 역시 고대의 가족형태가 변천해온 과정을 분석하면서 남편의 지배에 기초하여 남편의 혈통을 확실히 하는 일부일처제 가족 구조가 확립되면서 “한 성에 의한 다른 성의 억속”⁴⁸⁾이 나타나고, 이는 “최초의 계급적 억압”인 “남성에 의한 여성의 억압”⁴⁹⁾을 낳는다고 주장했었다. 박완서는 엥겔스도 말했던 대로 지배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영역에도 젠더를 매개로 존재하고, ‘민중’ 논의가 지배의 총체적 종식을 지향한다면 이들의 논의에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억압에 관한 논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한다면 박완서가 소설 안에서 그려낸 가정 내의 젠더 갈등은 지배자의 억압을 다루는 ‘민중’ 문학을 의식하면서 사적

46) 고정희 외, 『페미니즘 문학과 여성운동』, 또 하나의 문화, 『여성 해방의 문학?』, 평민사, 1987, 26쪽.

47) 박완서의 소설과 민중문학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를 달리하여 더 자세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48) 프리드리히 엥겔스, 김대웅 옮김,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두레, 2012, 111쪽.

49) 프리드리히 엥겔스, 위의 책, 112쪽.

영역에서 여성들이 겪고 있는 ‘억압’을 재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박완서가 여성들이 겪고 있는 ‘억압’을 인식한 방식은 이 좌담회 이전에 간행된 수필집 『서있는 여자의 갈등』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이 수필집에 실린 글 중 『서있는 여자의 갈등』에서 박완서는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임노동 시장에서 전문직을 담당하는 여성들의 상황을 경유하여 밝힌다. 박완서는 우선 가사 노동이 여성의 일로만 취급되고, 나아가 이 일이 전문성이 없으며 본업으로 삼을만하지 않다는 차별적인 인식을 비판하고, 재생산 노동인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 여성들의 책임으로만 전가되는 현실을 비판한다. 나아가 그녀는 재생산 노동이 젠더에 상관없이 행해지는 노동이어야 하며 나아가 사회화되어야 하는 노동이라고 주장한다.

재생산 노동의 사회화는 박완서가 아니더라도 일찍이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와 같은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⁵⁰⁾이 여성의 해방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조건으로 언급했던 것이다. 물론,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의 초점은 노동계급 여성들이었고, 박완서가 그리는 중산층이나 소부르주아 여성들은 아니었지만, 이들 모두가 결과적으로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는 ‘재생산 노동의 사회화’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박완서는 한국사회의 조건을 고려하여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과는 달리 재생산 노동의 사회화를 중산층 여성들을 경유하여 재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구로 공단에서 먼저 어머니 기능공을 위한 유아원이 생겨난단 소식을 듣고 보니, 고급 직업을 가진 여자일수록 여자 모두가 함께 관련된 문제도 될 수 있는 대로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혼자서 은밀히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소득이 넉넉하다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기

50) 재생산 노동의 사회화와 관련된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의 글은 다음을 참고: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여성문제의 사회적 토대』, 『공산주의와 가족』, 정진희 엮음,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여성해방론: 콜론타이·체트킨·레닌·트로츠키 저작선』, 책갈피, 2015, 76-98, 208-228쪽.

훨씬 쉬운 처지에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일수록 끼리끼리 힘을 모으는 게 유리하다는 걸 더 빨리 발견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여자문제는 크게 보면 여자 모두에게 관련되어 있어 자기가 모면했다고 해서 정말 모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고급 여자 인력사이에서 시작되어야만 본보기가 되고 파급 효과도 큰 만큼 문제성을 과감히 드러내어 여자 전체가 끼리끼리라는 친근감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러려면 우선 이른바 고급 여자 인력이 일인 몇 역의 허구부터 깨뜨리고 나와야 하지 않을까.⁵¹⁾

인용문에서처럼, 재생산 노동의 사회화가 제일 시급한 여성들은 소득 수준이 낮고 가족 등을 동원하여 재생산 노동을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여성들이다. 그러나 박완서는 이들을 위한 제도가 활성화되어야할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고, 고학력 중산층의 ‘고급’ 여성 인력이 스스로가 겪고 있는 임노동과 재생산 노동의 이중부담을 드러내고, 이것의 사회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있는 여자의 갈등』에서 박완서가 이러한 주장을 펴게 되는 두 가지 배경이 언급되는데, 하나는 재생산 노동 서비스의 구매를 꺼리는 당시 한국의 분위기와, 다른 하나는 중산층 여성들이 임노동과 재생산 노동 모두를 문제없이 해내는 것처럼 꾸미는 현실이다. 이 두 배경은 한편으로는 재생산 노동의 사회화가 시급한 여성들을 강조하기보다 중산층 여성들을 강조해야하는 필요성을 제시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박완서의 최종적인 목표는 사회가 지금 당장 임노동 시장의 여성들에게 재생산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주장을 넘어서서, 대중들 사이에서 재생산 노동의 사회화가 일반적인 것으로 수용되는 분위기 조성에 있었다. 그리고 이런 일반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이 높은 여성들이 솔선수범하여 재생산 노동을 사회화된 영역에 맡겨야 한다고 보았다. 박완서는 이런 여성들이 노동

51) 박완서, 『서있는 여자의 갈등』, 나남, 1986, 103-104쪽.

계급 여성들보다 더 가시화되기 쉽고, 사람들이 이들의 생활방식을 모방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인정하고, 이들의 변화가 다른 이들의 변화보다 더 큰 사회적 과급력을 낳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박완서는 사회에 존재하는 직업 귀천의식을 인정하고, 이 의식을 이용하여 재생산 노동의 보편적인 사회화라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위 인용문에서 박완서는 여성들의 경제적이고 사회적 지위에 따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여자 문제는 크게 보면 여자 모두에게 관련되어 있”다면서 여성들이 공유하는 공통성을 강조한다. 이 부분은 자칫 박완서가 여성들의 차이를 무시하고 여성들의 공통점만을 강조한다고 읽힐 위험이 있지만, 당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박완서가 여성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살펴야 한다. 박완서가 이 수필집과 소설 『서있는 여자』를 출간하던 1980년대 중반 당시는 적게는 60%, 혹은 많게는 90%의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했고, 동시에 상류층에 대한 선망은 더욱 강해졌으며 이것은 교육열과 소비열로 나타났다.⁵²⁾ 이렇듯 당시 경제적 격차로 인한 사회 갈등은 점차 사회문제로 수면 위에 드러나고 있었다. 그러나 문화적 차원과 사적 영역의 차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여성 문제는 상대적으로 그 관심을 받지 못했다. 심지어 1970년대와 1980년대 당시 여성은 중산층의 성격을 드러내는 표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⁵³⁾ 이러한 표상과 실제 여성의 삶 사이의 괴리는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박완서의 소설은 이와 같은 여성의 현실에 포착하여 여성들이 중산층을 상징하는 표상으로 드러나는 원인과, 이 표상 뒤에 가려진 여성의 노동착취와 소외를 선구적으로 재현해내었다. 이러한 박완서 소설의 특징은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여성문학’ 논의에서 자주 언급되는 중요한 텍스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52) 이상록, 『1980년대 중산층 담론과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확산』, 『사학연구』130, 한국사학회, 2018, 305-328쪽.(275-334)

53) 오자은, 앞의 글, 49-60쪽.

박완서 소설이 ‘여성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기존의 서사문법을 그대로 따르고, 성차별적 시선에 도전하지 않으며, 보수적인 시각에서 직업의 위계를 인정하는 측면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다. 실제로 이 소설에서 다루는 두 소설의 결말은 대중들에게 매우 익숙한 클리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소설의 서사전개는 소설 내적으로 선과 악을 표상하는 인물로 나누어 독자들이 쉽게 선을 표상하는 인물과 동일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이 소설이 가정 내 젠더 권력관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는 있으나, 인물들이 이 권력관계에 굴복하거나 회피할 뿐, 근본적으로 이 권력관계에 도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측면을 박완서 소설의 ‘보수성’이라기보다 ‘대중성’⁵⁴⁾이라 명명해야 더 적절할 것이다. 박완서는 『페미니즘 문학과 여성운동』에서 여성문학의 독자를 어디서 찾고 만나야 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말 우리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일을 하고자 하면 아주 대중적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야한다”⁵⁵⁾고 답한다. ‘대중성’은 작가로서의 자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중들의 선호를 추수하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박완서는 문학이 내포하는 ‘대중성’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독자의 수가 다르다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대중화’하기 위해서 문학은 ‘대중성’을 갖춰야한다고 주장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러한 박완서의 지향을 보수적이고 대중추수적이라고 비난하기 전에, 박완서가 자신의 소설 독자와 수용 범위를 넓히려 한 전략적 측면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완서 소설의 ‘대중성’은 박완서 소설이 가진 이중성과도 관련이 될 것이다. 앞서 제기한 문제로 되돌아가보면, 박완서의 소설은 사회의 계급 질서나 젠더질서에 전면적으로 도전하지 않는다. 인물의 갈등은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라기보다 개인들 간의 갈등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로 인해 박완서의 소설은 기존의 사회 질서에 전면적으로 도전하지 않고, 이 질서

54) 박완서 소설의 대중성에 관해서는 그를 달리하여 자세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55) 고정희 외, 앞의 책, 28쪽.

를 순응하며 개인들이 자력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인다. 김양선은 박완서 소설에 나타나는 대중성의 하나로 남녀 인물의 선악구도를 언급한 바 있다.⁵⁶⁾ 소설 안에 그려진 이분법적 구도는 대중들이 쉽게 이 소설의 ‘선’의 위치를 점하는 여성과 동일시하면서 소설을 읽도록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독자들은 여성의 시선에서 당대 사회의 여성들의 삶을 살필 수 있다. 물론, 어떤 독자들이 읽느냐에 따라 소설 안에 재현된 여성들의 모습이 다르게 읽힐 가능성이 있지만, 박완서는 임금노동의 베일 뒤에 가려진 여성들의 재생산 노동과 이 재생산 노동을 무급으로 착취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작동하면서 생산해낸 이데올로기를 드러냄으로서, 당대의 ‘여성문제’를 환기하고자 했다. 이 ‘여성문제’란 여성들이 자신들의 성취 지위와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가정 안에서 ‘노동계급’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 문제는 단순히 남성 가족구성원을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자본주의 사회 체제가 여성의 비가시화된 노동을 요구하는 상황을 의식하면서 나타난다. ‘여성문제’를 재현하는 박완서의 전략은 대중성을 놓지 않으면서도 여성들이 공유하는 재생산 노동자로서의 성격을 중심으로 여성들의 ‘계급’을 재현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5. 결론

이 논문은 박완서의 1980년대 소설 『살아있는 날의 시작』과 『서있는 여자』를 중심으로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중산층 여성들의 노동과 계급의 재현양상을 살폈다. 두 소설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던 당시에는 두 소설에 드러난 젠더 갈등이 주요 연구 대상이 되었으나,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이 젠더 갈등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 이 논문은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56) 김양선, 앞의 글, 224-227쪽.

젠더 갈등에 주목하되, 이 소설이 가부장적 억압의 물질적 토대를 재현하는 방식에 보다 주목하고자 했다. 서구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여성의 재생산노동을 부물로 착취하여 운영되는 현상을 분석하면서, 가정 내에서 재생산 노동이 부물로 행해지는 원인과 이것이 여성의 임노동 직종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였다. 이러한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박완서의 소설에서 가족들이 여성들의 노동력을 그녀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어떻게 착취하며 이것이 이 여성들의 계급 규정에 어떤 영향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두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인물들은 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지위가 높더라도, 가정 안에서는 여전히 성차별적인 전형적 젠더 분업을 암묵적으로 강요받거나 이러한 젠더 분업의 영향력 안에 있으며, 이로 인해 주변인물들 혹은 사회와 갈등한다. 박완서는 두 소설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성차별적 고정관념과 갈등하고,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린다. 결과적으로 박완서의 소설에서 여성들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가정 안에서는 재생산 노동을 담당하는 ‘노동계급’이며, 이 역할을 이혼 등으로 수행하지 않는 여성들에게는 규범에 벗어난 사람이라는 낙인이 부여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박완서 소설은 가정 내 젠더 불평등이나 이혼 여성에 대한 편견에 직접적으로 도전하지도 않고, 경제적이고 사회적 지위에 따른 인물들의 격차를 비판적으로 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박완서의 소설은 한편으로는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여 ‘여성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다고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1980년대 중후반 박완서가 발표한 수필과 그녀가 참여한 좌담회와 함께 두 소설을 읽어보면, 박완서는 사회의 지배질서에 직접적으로 도전하지 않으면서도 당시 민중문학에서 비가시화된 여성들의 재생산 노동을 소재로 삼고자 했다. 나아가 재생산 노동의 부담이 경제적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들에게만 무급으로 의무적으로 부여된 상황을 그려내어 여성의 계급이 경제적 수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었다. 나아가 그녀의 소설은 이러한 상황의 비합리성까지 꼬집고 있

다. 이것은 박완서가 대중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여성 문제를 소설 속에 형상화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박완서의 소설은 여성들의 계급을 공적 영역만이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의 역할까지 고려하여 재현해냈으며 소설 안에서조차 가정 내 여성들의 노동이 비가시화되던 상황에서 이 노동을 가시화하였다. 나아가 대중적으로 재생산 노동을 둘러싼 모순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하였다는 성과를 가진다.

참고문헌

1. 자료

- 박완서, 『서있는 여자의 갈등』, 나남, 1986.
박완서, 『서있는 여자』, 세계사, 2003.
박완서, 『살아있는 날의 시작』, 세계사, 2002.

2. 단행본

- 또 하나의 문화, 『여성 해방의 문학?』, 평민사, 1987, 14-29쪽.
전경옥·변신원·김은정·이명실, 『한국여성문화사2: 1945-1980』,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5, 124-152쪽.
정진성·안진 외, 『한국현대여성사』, 한울아카데미, 2004, 95-119쪽.
정진희 엮음,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여성해방론: 콜론타이·체트킨·레닌·트로츠키 저작선』, 책갈피, 2015, 76-98, 208-228쪽.
앤서니 기든스, 배은경·황정미 역,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새물결, 2003, 81-88쪽.
프리드리히 엥겔스, 김대웅 역,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두레, 2012, 111-112쪽.
레오뵈디나 포르투나띠, 윤수중 역, 『재생산의 비밀』, 박종철출판사, 1997,

22-57, 195-197쪽.

실비아 페데리치, 황성원 역, 『혁명의 영점: 가사노동, 재생산, 여성주의 투쟁』, 갈무리, 2013, 21-74쪽.

3. 논문

김양선, 『박완서 소설의 대중성 연구-1980년대 여성문제 소설 다시 읽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4,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2, 215-234쪽.

김정현, 『저소득 이혼여성의 빈곤화 과정: 가족제도와 노동시장에서의 사회적 배제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8,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012, 69-102쪽.

오자은,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중산층의 정체성 형상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49-60쪽.

이명호·김희숙·김양선, 『여성해방문학론에서 본 80년대의 문학』, 『창작과비평』 18(1), 창작과비평사, 1990, 48-74쪽.

이상록, 『1980년대 중산층 담론과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확산』, 『사학연구』 130, 한국사학회, 2018, 275-334쪽.

Abstract

Women's Labor and Class

: *Beginning of Alive Days* and *Standing Woman* by Park Wansuh

Bae, Sang-mi

This paper examines the representation of middle class women's labor and social class in Park Wansuh's novels *The Beginning of Alive Days* and *Standing Woman*. In so doing, I incorporate Marxist feminist theory to explore the principle of the capitalist system which operates by exploiting not only wage labor but also un-waged reproductive labor. Although the women characters in the two novels are high in social status, they are not free from the exploitation of their reproductive labor in the private sphere by their husbands, thus explaining why the women conflict with other characters and the broader society. This article proposes that this phenomenon exemplifies the "the woman question," and addresses how the two novels depict the material foundation of society. Park Wansuh's novels thereby propose how women may resist the sexist stereotypes which they have internalized. In this process, Park's novels do not directly challenge family gender inequality or the prejudice against divorced women. Neither is the discrimination of economic status explicitly criticized in the novels. Therefore, on one hand, Park's novels seem to be conservative, but on the other hand, they visualize women's social status as a class of reproductive laborers entangled in a controversy over reproductive work.

Key words : Park Wansuh, *The Beginning of Alive Days*, *Standing Woman*, Women Questions, Reproductive Labor, Middle Class, Class, Labor

■ 본 논문은 2018년 11월 22일에 접수되어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8년 12월 12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